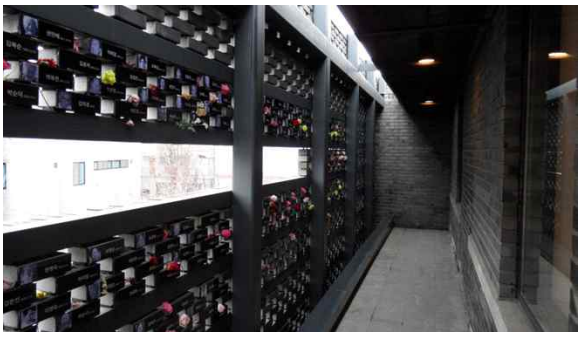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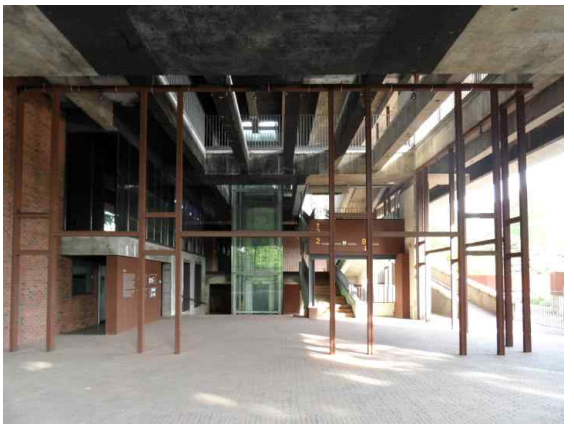
Remembrance: 추모, 추억, 회고, 기억

김란수 건축인문연구실 12214호 / kimransoo@mju.ac.kr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리모델링)

전숙희 & 장영철 부부 건축가는 기존의 평범한 주택에 새로운 외벽을 만들고 내부를 개조하여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설계했다. 그들은 신축된 외벽의 일부에 칸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과 이름을 하나씩 새겨놓고 꽃을 놓아 추모 벽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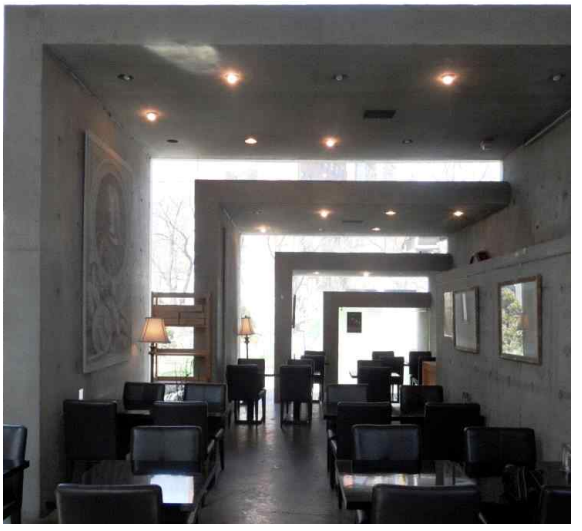


꿈마루 (낭만적 복원)

조성룡 건축가는 나상진 건축가의 서울컨트리클럽하우스 건물을 그 골조미와 연륜을 드러낸 휴식 공간인 꿈마루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당초 로비 공간이었던 부분에서 외벽과 유리벽을 제거하고 천장만을 남겨 이곳을 반 외부 공간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원래 유리 외벽이 있던 자리를 암시하기 위해 금속창틀을 설치했다.

도천 라일락집 (신축)

정재헌 건축가는 도천 도상봉 화백이 기거하던 집터에 그가 주로 그렸던 라일락 그림의 느낌을 닮은 우아하고 편안한 주택을 설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주택 이름을 <도천 라일락집>으로 정했다. 후손들이 4대째 사는 이 집에는 살림집 본채와 분리된 도상봉 기념관 매스가 있다.



김옥길 기념관 (신축)

김인철 건축가가 설계한 김옥길기념관의 명칭은 건축주인 김동길박사가 작고한 친누나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 이 건축물은 전시관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쓰이고 있으나, 예술작품 또는 기념비처럼 보이며 망자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실제로 이 건물 정면 입구부근에 있는 동판에서 사람들은 김옥길 여사의 동판부조 초상화를 발견한다.

구산동도서관마을 (리모델링 & 신축)

최재원 건축가는 구산동도서관마을 프로젝트에서 낡은 다가구주택이 모여 있는 10필지에서 건물 3동을 남기고 기존 도시조직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 설계를 하였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 기존 마을 풍경과 어울리면서, 주민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규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담은 이 도서관마을은 국내 공공프로젝트의 새로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건축 좋아하고 성실한 학생 환영합니다!